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61
----------	------

발의연월일 : 2024. 7. 18.

발 의 자 : 서미화 · 박지혜 · 황운하
복기왕 · 이수진 · 이재강
박지원 · 백승아 · 이인영
윤종오 · 정준호 · 윤종균
이성윤 · 정진욱 · 강준현
이기현 · 오세희 · 김성환
최보윤 · 김 윤 · 조계원
이병진 · 김한규 · 김예지
정혜영 · 박정현 · 채현일
의원(2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진정을 한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희롱 사건의 경우 즉각적인 대응의 어려움으로 퇴사를 결정한 후에 신고 등을 하는 경우가 많고, 군 인권사건 또한 현역병인 경우 대응이 어렵고 제대 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진정 제기 시효 1년이 진정 사건의 권리구제에 다소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현행법상 업

격한 진정 요건으로 실질적인 인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진정의 각하 요건을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로 개정하고(안 제32조제1항제4호) 동법 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조항도 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으로 개정하여 진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0조의7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본문 중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을 “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으로 한다.

제50조의7제1항 본문 중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을 “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년 이상”을 “2년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정의 각하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한다.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①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u>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u> 지나서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 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 <u>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u> ----- -----. ----- ----- ----- -----.
5. ~ 10. (생략)	5. ~ 10.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0조의7(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 ① 위원회등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u>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u> 지난 군인권침해 사건 관련 진정으로서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진정의 경우에	제50조의7(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 ① ---- ----- -- <u>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u> -- ----- ----- -----

<p>는 제32조제1항제4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u>1년 이상</u>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p> <p>② ~ ③ (생략)</p>	<p>-----</p> <p>-----</p> <p>-----</p> <p>-----</p> <p>-----</p> <p><u>2년 이상</u> -----</p> <p>-----.</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